

2021년 의정활동 마무리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1. 11. 25.~12. 17. / 23일간)



일부개정조례안 20건 등 총 29개 안건 가결

강릉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차 본회의 때 제안한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및 기동 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과 3차 본회의 때 제안한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인사, 교육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도 시행했다.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전심사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차질이 생기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다시 한번 극복하리라 믿고,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는 강릉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2022년 당초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6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결과

- 202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6.6% 증가한 1조 3,017억 3,900만 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10개 부서, 세출예산 12개 사업에 총 18억 9,038만 원 삭감
- 강릉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2월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주문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 2021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368억 4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1,400만 원으로 원안 가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조 5,126억 2,900만 원으로 편성
-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에 따른 예산 반영
- 강릉시청 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비 3억 원 삭감

제1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대표발의 신재걸 의원

제안이유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기존 대상 지역이 제외 되는 등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강릉시의회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는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함.

이송처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속 의회 의장

건의문 제3차 본회의(2021. 12. 17)



대표발의 김기영 의원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

제안이유 영동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소외됐으나, 강릉~제진 간 철도연결사업, 동서고속전철, 양양 고속도로, 플라이강원 등 물류·교통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영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 강릉에 있는 환동해본부의 확대개편, 이전·신축을 통한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를 건의함.

이송처 강원도지사



대표발의 김용남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

제안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강릉은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을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강릉시의회는 국토 균형 발전과 올림픽 평화 정신 계승, 겨울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을 건의함.

이송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위원회, 강릉관광개발공사·'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방문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물 점검과 2022년도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운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신규 구성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익순 행정위원장은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모두 강릉시의 문화예술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강릉시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산업위원회, 강릉 아르떼뮤지엄·포남동 빗물펌프장 방문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강릉 아르떼뮤지엄과 포남동 빗물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당시 개관을 1개월쯤 앞둔 강릉 아르떼뮤지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전 방향을 다 같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재해복구 공사가 시행된 포남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공정률과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규민 산업위원장은 “포남지구 재해복구공사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겪었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큰 공사인 만큼 잘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시련 극복을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띠 해입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자 강릉시의 상징 동물로서 우리 지역의 설화 속에 자주 등장하며 강릉 시민의 자주성과 용맹성을 상징하는 영물입니다. 모든 시민께서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듬뿍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곳곳에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친 수많은 시민 영웅들 덕분입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강릉시의회는 2022년을 일상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깊이 소통하며 더 힘차게 뛰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재정비, 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재정비 등을 차질 없는 준비 하겠으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세계합창대회 성공 개최, ITS 세계총회 유치,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관광 거점도시 사업 등 강릉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들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문화예술, 체육, 농어업 분야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으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또다시 새해가 열렸습니다.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강릉 시민의 힘으로 희망의 봄날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릉시의회 모든 의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도약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강릉시의회를 늘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강릉시의회 의장 강 희 문

강릉시의회-강릉시 인사운영 업무 협약식



강릉시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우수 인재 인사교류를 통한 양 기관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강릉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준비단(T/F)을 구성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조직개편 및 정책지원관 인력 배치를 위한 사무공간 확충, 관련 조례·규칙 정비안 마련 등을 추진했고, 11월에는 집행부와 실무협의를 위해 자체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정원 및 조직관리의 상호 협조 △후생복지, 교육 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고, 협약의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희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소통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